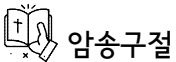


너는 시냇가에

*반주음원QR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 11:12)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 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8~17)



1 함께 찬양하기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 400장)

- 1)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 2)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 3)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후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신명기 11:8~12

-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
리라
-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
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한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부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할머니를 향해 “할머니, 할머니는 왜 우리가 떠날 때까지 현관에서 계세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질문이 귀엽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음 그건 손님을 배웅하는 예의란다. 네가 소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네가 떠날 때까지 너를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어린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할머니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할머니의 가족 인걸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품에 꼭 안아주며 “그래 맞아, 사랑스런 내 가족이지. 그래서 널 배웅하는 것은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를 내 눈과 마음 안에 담아두기 위해 더 오랫동안 너를 바라보는 거야. 그 이유는 물론 이 할머니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란단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다라쉬(דָּרַשׁ)’는 ‘지켜보다’ 혹은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라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용기백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 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 □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②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여 그들과 그들의 □□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과 □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껴 본 경험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②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 12절에서 해답을 찾고, 그 안에 담긴 신앙적 의미에 대해 나눠봅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나온 애굽 땅과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며 이 두 땅은 서로 다른 땅임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물을 활용하여 쉽게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서 너희들을 돌보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가르쳤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정신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을 돌보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